

24-21(통권 979호) 2024.12.06.

경제주평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목 차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전망의 배경	8
3. 2025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13
4. 시사점	1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소비) 고금리와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약화 요인과 더불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매판매의 전월비 증가율은 9월과 10월 연속해서 감소했는데 전년동월비로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전체 설비투자는 단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CT 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비 5.8% 증가했지만, ICT 투자는 동 4.1% 감소해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월 -7.8%를 기록하면서 감소 전환되었고, 자본재수입 증가율 역시 9월 25.6%에서 10월 1.7%로 크게 하락했다.

(건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역시 10월 들어 감소 전환되었다. 특히, 향후 건설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대폭적인 감소(전년동월비, 10월 -29.9%)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저효과와 주력 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4.6% 감소(MTI 기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11월 전년동월비 각각 -0.6%, -5.1%로 감소 전환한 것도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년층,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창출력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2.3%로 전년 10월 2.1%보다 상승했으며, 신규취업자 증가 규모 역시 동기간 8.3만 명으로 전월 14.4만 명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산업별 신규취업자 규모도 동기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3.3만 명, 9.3만명 감소했다. 한편, 청년층 취업자 규모는 동기간 18.2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월 31.4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물가)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생산자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 침체로 인한 수요측 인플레이 압력도 낮은 수준으로 1%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9월 -3.7%, 10월 -2.5%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생산자물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1%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에서 10월에는 1.3%까지 하락해 전반적인 수요측 인플레이 압력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주체의 심리)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가계심리지수(CSI)와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초반 반등했으나, 최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 전망의 배경

(글로벌 경기: 높은 불확실성 속 완만한 개선) 글로벌 피벗(pivot)에 의한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중국 등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과 같은 리스크가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경기)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ASEAN5와 인도 등은 성장 기대가 높은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당사국 및 주변국 경제는 회복 지연 또는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멕시코 등 미주 지역 신흥국 성장세도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세계 교역)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수요 확대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반도체 및 ICT 경기의 완만한 둔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지속 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과 같은 리스크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경기: 확대되고 있는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멈추면서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지난 2분기 전기비 기준 역성장($\Delta 0.2\%$)한 후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되었으나, 0.1% 정도로 미미한 회복에 그쳐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이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1p로 전월과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며 경기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미래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6p로 7월(100.7p) 이후 둔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향후에도 경기 하강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국내 경제는 외수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모멘텀 확보가 없다면 성장경로를 이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에 관한 공약 실천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문은 재정과 통화 여력 모두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타이밍과 재원의 분배 효율성 정도에 따라 회복 모멘텀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가속이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U'자형의 완만한 성장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한국경제 전망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이나마 회복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금융조달 비용의 하락,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점진적인 완화, 수도권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책 현실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누적된 주택 건설 수주·인허가·착공 감소,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비투자) 금리 하락에 따르는 투자심리 개선,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비ICT 부문 경기 회복 지연 등은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 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원화환율 불안 등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 금리 하락에 따르는 비용 감소, 유가 약세 등에 의해 완화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 주요 산업(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신규 취업자 규모가 축소됨과 동시에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구 분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1.4	2.8	1.5	2.1	1.5	1.8	1.7
민간소비 (%)	1.8	1.0	1.6	1.3	1.5	1.7	1.6
건설투자 (%)	1.5	0.4	-3.4	-1.6	-3.0	0.5	-1.2
설비투자 (%)	1.1	-1.8	4.1	1.1	5.3	0.1	2.7
수출증가율 (%)	-7.5	9.1	7.4	8.2	4.0	1.5	2.7
소비자물가 (%)	3.6	2.8	1.8	2.3	1.8	2.1	2.0
실업률 (%)	2.7	3.1	2.4	2.7	3.2	2.8	3.0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4년, 2025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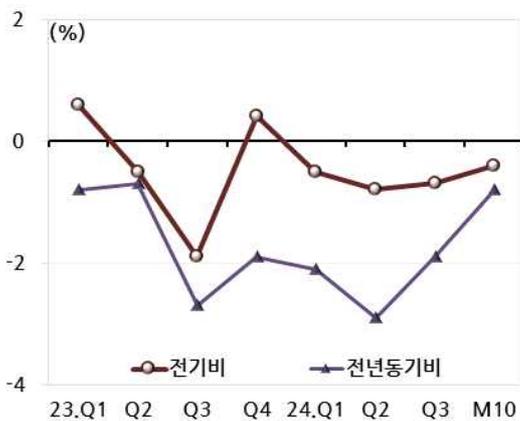
2025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통화 및 재정 정책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투자와 고용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둔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¹⁾

○ (소비 침체 장기화)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약화 요인과 더불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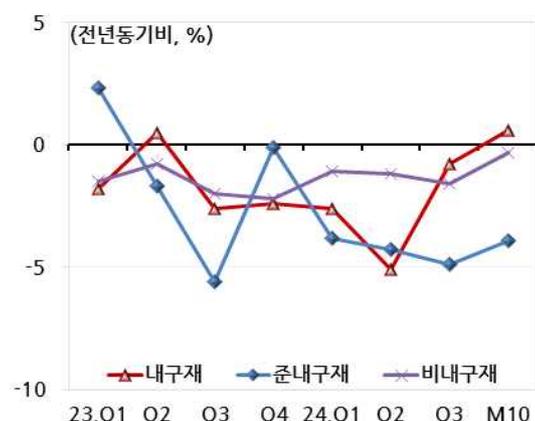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비와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분기 $\Delta 0.8\%$, 3분기 $\Delta 0.7\%$, 7월 $\Delta 2.0\%$, 8월 1.5% , 9월 $\Delta 0.5\%$, 10월 $\Delta 0.4\%$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2.9\%$, 3분기 $\Delta 1.9\%$, 7월 $\Delta 2.2\%$, 8월 $\Delta 1.5\%$, 9월 $\Delta 2.4\%$, 10월 $\Delta 0.8\%$
-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
 -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통신기기·컴퓨터, 가전 등이 감소함
 -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5.1\%$, 3분기 $\Delta 0.8\%$, 7월 0.9% , 8월 $\Delta 5.0\%$, 9월 2.0% , 10월 0.6%
 -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1.2\%$, 3분기 $\Delta 1.6\%$, 7월 $\Delta 1.9\%$, 8월 1.3% , 9월 $\Delta 4.0\%$, 10월 $\Delta 0.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1) 본절의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4분기)', 경제주평 24-20호, 2024년 12월 2일 자료를 인용한 것임.

○ (ICT 투자의 부진과 투자선행지표의 악화) 설비투자의 핵심 부문인 ICT 투자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도 악화되는 모습

- 10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비로는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로는 감소

· 10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10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24년 9월 대비)로는 5.8% 감소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분기 △1.5%, 3분기 10.8%, 7월 18.1%, 8월 7.1%, 9월 7.3%, 10월 5.8%

· 다만, 그동안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ICT투자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분기 6.2%, 3분기 △10.3%, 7월 △9.8%, 8월 △9.7%, 9월 △11.6%, 10월 △4.1%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급락하면서 향후 설비투자에 불확실성이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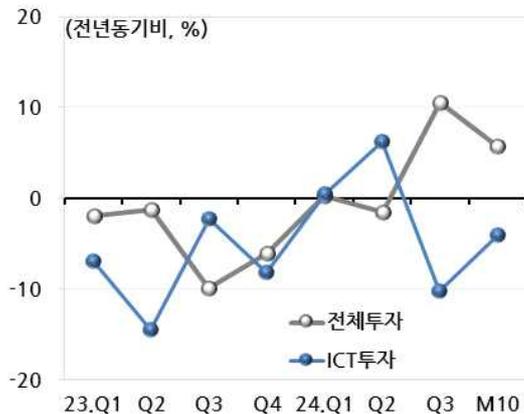
·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자본재수입액은 10월에 들어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7월 18.4%, 8월 7.4%, 9월 25.6%, 10월 1.7%

· 국내기계수주도 9월 증가세에서 10월에 감소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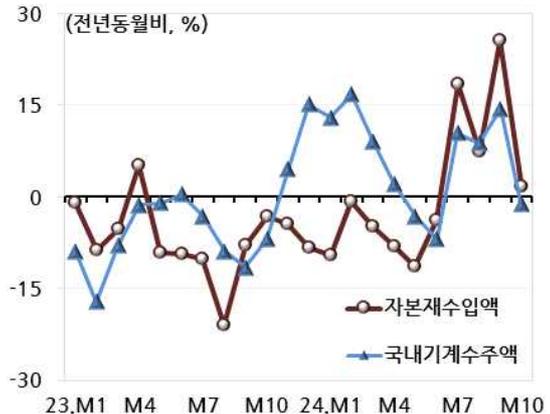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²⁾: 7월 39.2%, 8월 0.6%, 9월 3.4%, 10월 △7.8%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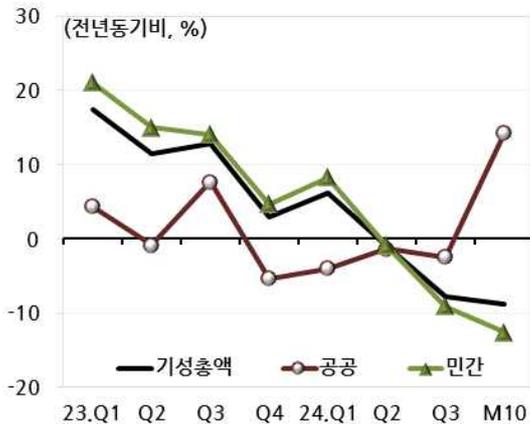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기성과 건설수주의 동반 침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감소세로 전환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감소세를 지속
 -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Delta 8.7\%$ 로 5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Delta 1.0\%$, 3분기 $\Delta 7.8\%$, 7월 $\Delta 3.1\%$, 8월 $\Delta 8.1\%$, 9월 $\Delta 11.9\%$, 10월 $\Delta 8.7\%$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반등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Delta 1.3\%$, 3분기 $\Delta 2.4\%$, 7월 12.6% , 8월 $\Delta 4.1\%$, 9월 $\Delta 11.7\%$, 10월 14.2%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Delta 0.9\%$, 3분기 $\Delta 9.1\%$, 7월 $\Delta 5.9\%$, 8월 $\Delta 9.1\%$, 9월 $\Delta 12.2\%$, 10월 $\Delta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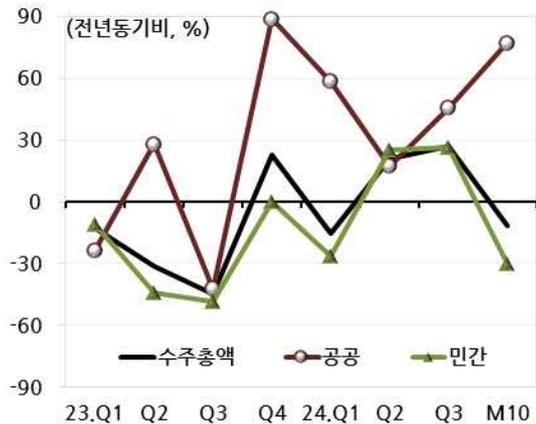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10월에 들어 공공 부문은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 부문이 감소세를 기록
 - 10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11.9\%$ 로 감소세로 전환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20.9% , 3분기 27.0% , 7월 52.0% , 8월 25.5% , 9월 10.9% , 10월 $\Delta 11.9\%$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17.3% , 3분기 45.6% , 7월 29.3% , 8월 $\Delta 30.4\%$, 9월 187.2% , 10월 77.1%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25.0% , 3분기 26.2% , 7월 59.3% , 8월 27.2% , 9월 3.9% , 10월 $\Delta 29.9\%$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하강 우려) 11월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수출도 경기 하강의 우려가 존재

- 1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3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1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기저효과와 축소로 7월 정점 이후 증가율 자체는 빠르게 하락함

※ 수출액 증가율: 7월 13.5%, 8월 10.9%, 9월 7.1%, 10월 4.6%, 11월 1.4%

· 한편, 수출에서 반도체(MTI 831)를 제외할 경우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 중이나, 11월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30.8%)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우리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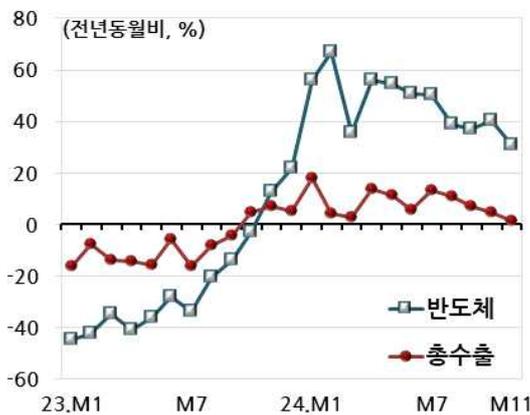
· 對중국 수출은 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11월에 감소세로 전환됨

※ 對중국 수출증가율: 5월 7.5%, 6월 1.9%, 7월 14.8%, 8월 7.9%, 9월 5.6%, 10월 10.8%, 11월 Δ 0.6%

· 또한,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對미국 수출은 9월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다가 11월에 역시 감소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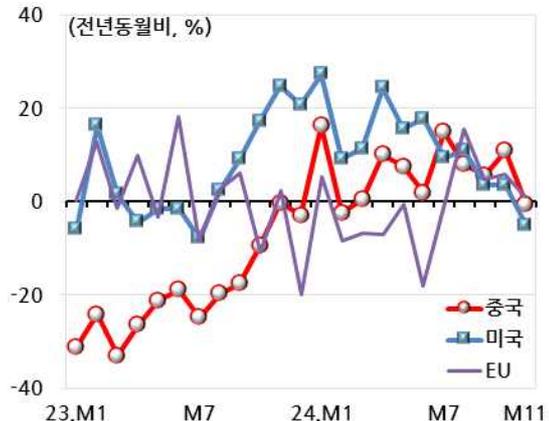
※ 對미국 수출증가율: 5월 15.5%, 6월 17.7%, 7월 9.4%, 8월 10.9%, 9월 3.4%, 10월 3.4%, 11월 Δ 5.1%

< 총수출 및 반도체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전반적 고용창출력 약화 속, 청년층 고용시장 냉각)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령층별로는 청년층, 산업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위축되는 모습이 뚜렷

- 10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구직단념자는 감소

· 10월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23년 10월 2.1%)보다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³⁾는 '23년 10월 35.5만 명에서 '24년 10월 34.6만 명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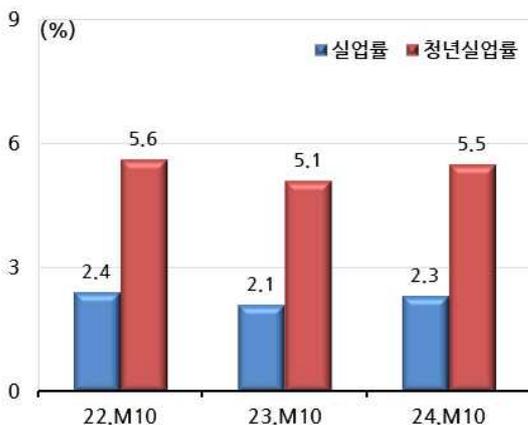
-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8.3만 명으로 9월의 14.4만 명보다 감소,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은 유지되나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수는 감소세 지속

· 10월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8.3만 명으로 9월(14.4만 명)보다 감소함
 ※ 취업자 증감(YoY): 6월 9.6만 명, 7월 17.2만 명, 8월 12.3만 명, 9월 14.4만 명, 10월 8.3만 명

·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3.3만 명, 건설업 △9.3만 명, 서비스업 26.3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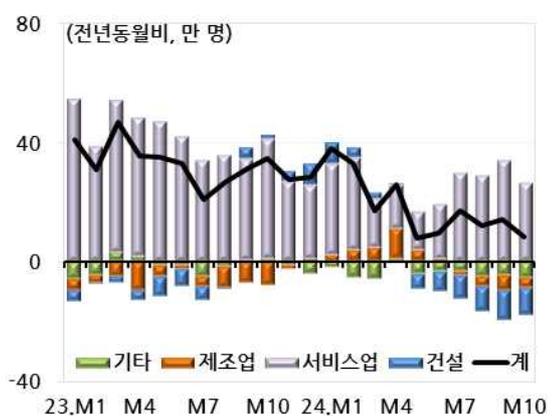
· 한편,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은 △18.2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월(△31.4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함

< 10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⁴⁾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3)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수입물가가 감소하고 생산자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침체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은 수준

- 10월 중 수입물가가 감소하고 생산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1%의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

·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23년 10월 89.8달러/bbl → '24년 10월 74.9달러/bbl) 등의 영향으로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6월 9.6%, 7월 9.9%, 8월 1.8%, 9월 △3.7%, 10월 △2.5%

· 10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올랐으나 공산품이 감소하여 9월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1.0%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6월 2.5%, 7월 2.6%, 8월 1.6%, 9월 1.0%, 10월 1.0%

-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대비 1.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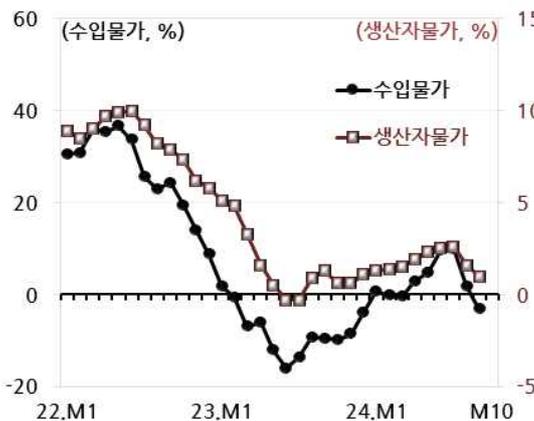
·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비스(전년동월대비 2.1%) 및 전기·수도·가스(전년동월대비 3.0%) 상승 폭이 컸으나, 공업제품 가격이 하락(전년동월대비 △0.3%) 하면서 1.3%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7월 2.6%, 8월 2.0%, 9월 1.6%, 10월 1.3%

· 또한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10월 근원물가상승률도 1%대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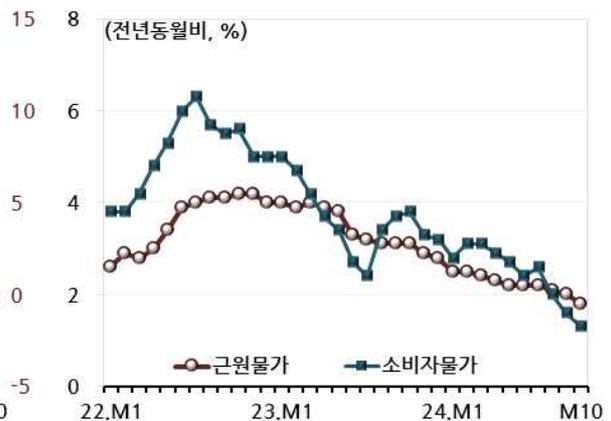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7월 2.2%, 8월 2.1%, 9월 2.0%, 10월 1.8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4)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의 합계.

○ (민간주체의 심리 부진) 최근 경제 여건이 부진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는 위축되고 기업 심리도 뚜렷한 개선세가 부재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하반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1월 70p로 10월(73p)보다 하락

※ 현재경기판단 CSI: 7월 77p, 8월 73p, 9월 71p, 10월 73p, 11월 70p

· 또한, 향후경기전망 CSI도 10월 81p에서 11월에 74p로 하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긍정적 관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경기전망 CSI: 7월 84p, 8월 81p, 9월 79p, 10월 81p, 11월 74p

- 한경협 BSI와 한은 CBSI 등의 기업심리지수⁵⁾는 최근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준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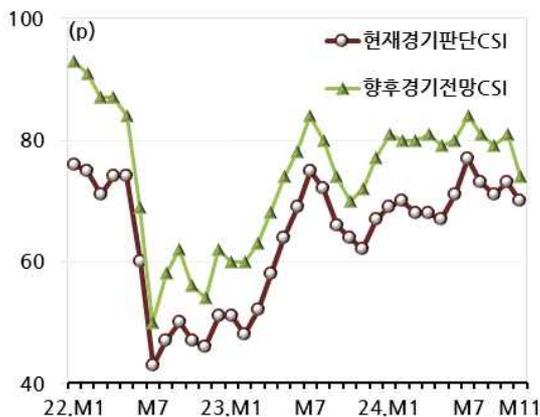
· 한경협 BSI(전망)는 11월 91.8p에서 12월에 97.3p로 개선됨

※ 한경협 BSI(전망): 7월 96.8p, 8월 97.1p, 9월 92.9p, 10월 96.2p, 11월 91.8p, 12월 97.3p

· 또한, 한은 12월 CBSI(전산업)는 89.7p로 11월(89.8p)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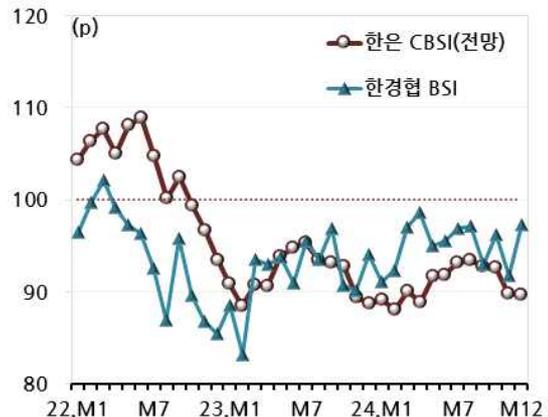
※ 한은 CBSI(전산업): 7월 93.1p, 8월 93.4p, 9월 92.7p, 10월 92.6p, 11월 89.8p, 12월 89.7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5)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C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2. 전망의 배경

2-1. 글로벌 경기 : 높은 불확실성 속 완만한 개선

- 글로벌 피벗(pivot)에 의한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중국 등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과 같은 리스크가 성장을 제약
- 선진국 경기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진입이 전망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과 일본은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 등 외수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경기 : 글로벌 교역의 증가세 유지로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ASEAN5,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단,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국가 간 성장 차별화 현상도 유지될 전망
 -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멕시코 등 미주 지역 신흥국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 교역 :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수요 확대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반도체 및 ICT 경기의 완만한 둔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지속 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의 리스크도 상존

< 주요 전망기관들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2025년 경제전망 >

(%)

구분	IMF('24.10)		OECD('24.12)		World Bank('24.06)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3.2	3.2	3.2	3.3	2.6	2.7
선진국	1.8	1.8	1.7	1.9	1.5	1.7
미국	2.8	2.2	2.8	2.4	2.5	1.8
유로지역	0.8	1.2	0.8	1.3	0.7	1.4
일본	0.3	1.1	-0.3	1.5	0.7	1.0
신흥개도국	4.2	4.2	4.4	4.4	4.0	4.0
중국	4.8	4.5	4.9	4.7	4.8	4.1
인도	7.0	6.5	6.8	6.9	6.6	6.7
브라질	3.0	2.2	3.2	2.3	2.0	2.2
러시아	3.6	1.3	-	-	2.9	1.4
세계 교역증가율	3.1	3.4	3.5	3.6	2.5	3.4

자료 : IMF, OECD, World Bank.

주 : OECD의 선진국은 OECD 회원국, 신흥개도국은 비OECD 회원국임.

2-2. 국내 경기 : 확대되고 있는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

○ (전반적인 경기 활력 저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의 성장 견인력 위축과 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활력 저하

- 3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0.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Δ 0.2%)의 역성장을 감안할 때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

· 3분기 GDP 구성 요소별로 보면 민간소비(전기비 0.5%)와 설비투자(6.5%)가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Δ3.6%)가 2분기에 이어 불황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Δ0.2%)이 침체되는 모습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 여전히 경기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하강 국면이 지속 중이며, 나아가 선행지수는 경기 하강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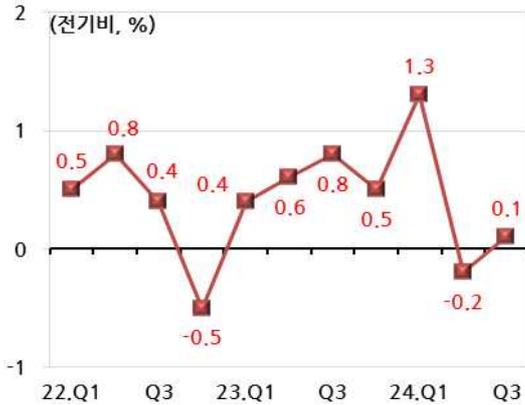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 현재 98.1p로 9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98.3p, 8월 98.2p, 9월 98.1p, 10월 98.1p

· 또한,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7월 이후 여전히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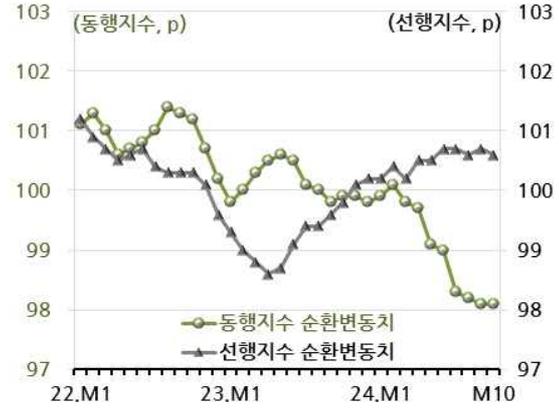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100.7p, 8월 100.6p, 9월 100.7p, 10월 100.6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고조되는 외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속에 그동안 경제를 지탱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위축과 함께 자동차 부품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제재 관련 산업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 활력 저하 가능성
-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對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에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우리 메모리반도체(HSK 854232)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내 주력 품목인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징후가 나타남

< 반도체 수출 규모 및 비중 >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경원.

- 주 1. HSK 전자집적회로 8542 기준.
- 2. 2024년은 10월까지 누적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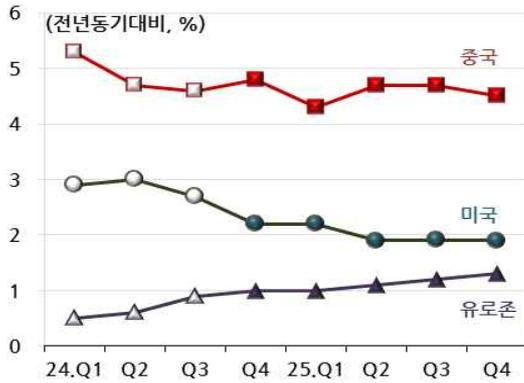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한국 메모리반도체 수출물량증가율 추이 >



자료: PSE, 한국무역협회

- 특히, 국내 반도체 수출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對 중국 및 홍콩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강화 시 전체 수출에 대한 악영향은 더 확대될 수 있음⁶⁾

< 미국과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 >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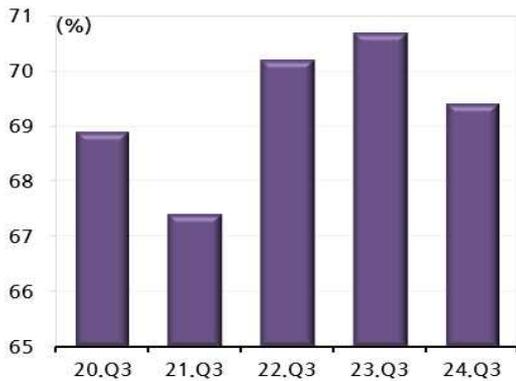
주: 2024년은 10월까지 누적치 기준.

○ (내수 회복 모멘텀 부재) 최근 소비성향이 급락하는 가운데 향후 실질 구매력의 급반등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

- 상반기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3분기에 들어 하락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 69.4%로 전년동분기인 2023년 3분기의 70.7%보다 1.3%p가 하락함
 - 올해 들어서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성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1.2%p 및 0.7%p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 들어 감소하는 모습임
-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금리와 물가 수준으로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가계대출 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신규대출액)는 1월 3.66%에서 10월에 3.37%까지 하락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한편, 최근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가계의 체감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아지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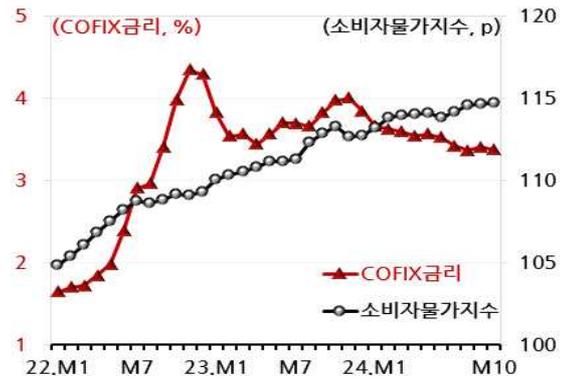
6) 지난 2024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SME)의 對 중국 수출 통제를 결정한 바 있음.

< 가계 평균소비성향(전국, 전체가구, 1인 이상) 추이 >



자료: 통계청.

< 코픽스금리⁷⁾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통계청.

○ (확대되고 있는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 수출의 성장 견인력 하락과 미약한 내수 회복 모멘텀으로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U」 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 :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가속이나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 진작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완만히 개선되는 경로
- 「L」 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 :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는 경우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경로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7)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들로부터 신규수신상품 금리 정보를 받아 산출하는 은행의 자금 조달 시 비용을 의미하며, 가계대출 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임.

3. 2025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 경제성장률 : 연간 1.7% 전망. 지표상 하반기(1.8%)가 상반기 (1.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의 전환 기대는 약할 것으로 판단
 - 지표상 하반기 성장률(1.8%)이 상반기(1.5%)보다 높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 복귀 기대는 약할 것으로 전망
 - 단,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무역정책 등 공약 실현 정도,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수준과 미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 여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와 경제 회복 수준, 지정학적 여건과 글로벌 공급망의 향방,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현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 소폭 회복. 연간 1.6%(상반기 1.5%, 하반기 1.7%)
 -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이나마 회복 전환 기대
 - 단, 고용 환경 악화,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 회복세 둔화. 연간 -1.2%(상반기 -3.0%, 하반기 0.5%)
 - 금융조달 비용의 하락,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점진적 완화, 수도권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책 현실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누적된 주택 건설 수주·인허가·착공 감소,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설비투자 : 회복세 강화. 연간 2.7%(상반기 5.3%, 하반기 0.1%)
 - 금리 하락에 따르는 투자심리 개선,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비ICT 부문 경기 회복 지연 등은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입 :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전환 전망. 수출 연간 2.7%(상반기 4.0%, 하반기 1.5%), 수입 연간 1.0%(상반기 1.5%, 하반기 0.5%)
- 2025년 수출 증가율은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과 더불어 반도체 및 ICT 경기 둔화, 비ICT 부문 회복 지연,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 증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대폭 둔화될 것으로 판단
 - 수입은 역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따라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단,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정도가 미미해 소폭이나마 흑자 폭 확대가 기대
- 경상수지 : 소폭 감소 전망. 연간 710억 달러(상반기 360억 달러, 하반기 350억 달러)
-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 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물가 : 하향 안정화 지속. 연간 2.0%(상반기 1.8%, 하반기 2.1%)
-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원화환율 불안 등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 금리 하락에 따르는 비용 감소, 유가 약세 등에 의해 완화되면서 2% 정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
- 고용 : 고용시장 둔화. 실업률 연간 3.0%(상반기 3.2%, 하반기 2.8%), 신규 취업자수 연간 14만 명(상반기 12만 명, 하반기 16만 명)
- 주요 산업(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신규 취업자 규모가 축소됨과 동시에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표 (2024.12) >

구분	2023 연간	2024년			2025(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1.4	2.8	1.5	2.1	1.5	1.8	1.7
	민간소비 (%)	1.8	1.0	1.6	1.3	1.5	1.7	1.6
	건설투자 (%)	1.5	0.4	-3.4	-1.6	-3.0	0.5	-1.2
	설비투자 (%)	1.1	-1.8	4.1	1.1	5.3	0.1	2.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355	380	500	880	360	350	710
	무역수지(억 달러)	-103	230	295	525	317	331	648
	수출증가율 (%)	-7.5	9.1	7.4	8.2	4.0	1.5	2.7
	수입증가율 (%)	-12.1	-6.4	3.4	-1.7	1.5	0.5	1.0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2.8	1.8	2.3	1.8	2.1	2.0	
실업률 (%)	2.7	3.1	2.4	2.7	3.2	2.8	3.0	
취업자수 증감(만 명)	33	22	15	18	12	16	14	

4. 시사점

- 2025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통화 및 재정 정책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최근 한국경제는 2%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탈해 자칫하면 장기 저성장 기조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운용이 필요
-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 이외에도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여건 조성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재정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한 재정 기반 확충이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경로 이탈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경기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 여건의 악화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둘째, 투자와 고용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 우선, 첨단 기술 및 전략 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충, 외국인 직접투자자 투자 애로 해소 노력 강화, 글로벌 표준 기반 규제 개혁 추진, 친기업 정서 확산 등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국내 투자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전방위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수주 절벽에 직면한 건설투자의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의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시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PF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을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해야 함
- 셋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 글로벌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리 및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가지기 때문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풀림 현상을 통해 금융 및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급증시킬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자산 시장의 자체적인 건전성 제고와 해외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현재 수출 경기 호조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단기 사이클(시장의 수급)과 중장기 사이클(주력 품목의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여력을 확충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만성적인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철강, 유화 등의 기초소재 산업군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출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트럼프 노믹스 2.0」이 우리 수출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당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른 전세계적인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
- 한편,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섯째, 경기 둔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수단으로 추진되는 재정적 지원은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